

#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정영훈\*

---

I. 머리말	IV. 애합종족론과 도덕세계론
II. 종교구국론	V. 정교분리론
III. 홍암의 대중교 인식	VI. 맺음말

---

## I. 머리말

홍암 나철은 한말에 을사오적을 응징했던 민족운동가이자 대중교(단군교)를 포교한 종교운동가이다. 그러나 그는 한말에 대중교를 ‘중광한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가 포교한 대중교는 민족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갱생을 추구하면서 민족운동사 속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대중교 포교는 근대종교사에서만이 아니라 민족운동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중교는 스스로를 민족고유종교로 자처하면서 민족정신과 고유종교가 살아있으면 자주독립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중교의 포교활동은 그 자체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교는 한민족의 민족의식 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민족운동의 주요지도자들은 대중교의 교인이 되거나 그와 교류하면서 자주독립의지를 심화시켰다. 민족주의사학을 비롯한 국학운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학

동의 진전에 끼친 대중교의 영향은 지대하며, 그 치열한 자주독립사상은 무장항쟁을 포함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홍암 나철의 대중교운동을 ‘종교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본 것이다. 필자는 한국근대종교사 중 민족주의운동사와 연결된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 종교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 종교민족주의라는 용어는 그 동안에도 근대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더러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명확한 개념규정은 없이 종교활동의 민족주의적 측면-성격을 지칭하여 쓰여져 온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개념을 민족의 자주독립과 발전 같은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를 통하여 (이용하여) 달성하려 한 생각-노선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이같은 개념규정에 토대하여 근대종교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대 한국에서 전개된 여러 종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소간씩 민족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각 종교들은 포교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포교대상인 민족성원들이 가지고있던 고민과 과제 및 여망들에 대해 어느 정도씩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내용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단이나 지도자들은 자기 종교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나 기복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진보나 발전 또는 복지와 구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설교하였으며, 교인쪽에서도 개인적 관심사 아닌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종교에 입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의 여러 종교 중에서도 대중교와 그를 보급한 나철이 가졌던 민족주의적 성격은 한층 더 치열하면서 뚜렷한 것이었다. 나철의 종교민족주의는 고유의 종교를 망실한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토대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대중교를 민족고유의 종교라 자처하면서 민족이 이 고유종교를 잊고 외래종교에 빠진 것으로부터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파악한다. 나철의 종교민족주의는 한말 국학운동의 주요 흐름들이었던 어문민족주의나 역사민족주의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시경 등의 어문민족주의나 신채호 등의 역사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를 민족얼-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보고 이들 언어나 역사에 대한 발굴-계몽 보전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민족의 부활을 기약하려 하였는데, 나철의 종교민족주의는 국어와 역사 대신에 종교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대중교는 그 경전들만으로 보면 민족적 색깔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지만, 그러나 그를 보급한 나철은 이 대종교를 민족고유의 종교로 강조하고 이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부활이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있었다. 때문에 그의 노선은 종교민족주의라는 기준으로 근대 종교사를 정리할 때면 그 존재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 같다.

홍암 나철이 걸었던 종교민족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특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특히 (1) 고유종교 대종교가 활성화되어야 민족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그의 종교구국론과 (2) 민족부활과 체세구인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종교에 대한 관점 및 (3) 그의 사회이론이라 할 수 있는 애합종족론과 도덕세계론, (4)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합법적 포교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시했던 정교분리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네 측면은 대종교와 나철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종교구국론

홍암은 한말 일제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다. 그는 분명한 민족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산 사람이므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일본을 상대로 하여 조선의 국권유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인 것이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한 것, 민족 고유종교로의 대종교를 중광한 것 등은 그가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이었다.<sup>2)</sup> 그러나 홍암의 민

1)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가들 상당수는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가도 유교식 종묘사직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홍암 역시 초기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구분이 확실치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나 단군교를 중광할 무렵에는 분명한 민족단위의 역사인식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다. 단군교는 단군의 자손의 민족적 중흥이라는 분명한 민족적 관점에 토대하고 있었다.

2) 홍암 나철의 일대기와 활동을 다룬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종교중광60년사』, 대종교총본사, (1968), (2) 신철호, 『한국중흥종교 교조론 - 홍암 나철 대종사』, 대종교총본사 (1979), (3) 박영석, 「대종교의 민족의식과 민족독립운동」,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4), (4) 박환, 『나철·김교헌·윤세복』, 동아일보사, (1992), (5) 박환, 「나철의 인물과 활동 - 대종교창시 이전을 중심으로」,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5) 김동환 「기유중

족주의노선은 다른 민족주의운동가들과 차이 나는 점이 있는데, 곧 민족의 고유 종교를 부활시킴으로써 민족의 갱생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한말의 민족운동은 무력투쟁론이든 외교투쟁론이든 민족적 투쟁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과제에 부딪혔다. 그리고 다시 민족적 '외경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론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 노선과 물질적 역량을 기르고자 한 식산흥업론 등이다. 그중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흐름은 다시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를 통하여 민족정체성과 조국수호의지-애국심을 기르고자 한 흐름과 (신채호 등), 고유의 언어를 연구 보전하여 민족성을 지켜내려 한 흐름 (주시경 등), 그리고 민족종교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한 흐름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의 두가지는 기왕에도 역사민족주의와 어문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왔는데, 필자는 홍암의 노선을 특히 종교를 통한 구국운동-민족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종교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노선은 민족의 문화적 장점 내지 고유적 특성으로의 '國粹'가 유자 보전돼야만 민족의 생명이 지속되고 애국심이 고취될 수 있다고 본 국수보전론적 문체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sup>3)</sup> 다만 가장 중요한 '국수'를 역사와 언어와 종교로 서로 달리 본 점에 차이가 있다.<sup>4)</sup>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고유종교를 망실하고 사대모화사상에 빠진 망본배원의 상황이 망국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이같은 문체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건이 「단군교포명서」이다. 이 문건은 1904년 백봉 중심의 교단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홍암의 생각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홍암의 것으로 인용해도 될 것이다.

“오호라 汪洋한 千派萬流의 水도 其源을 塞하면 渴고하고 鬱蒼한 千枝萬葉

광의 민족사적 의의, 『국학연구』 제1집, 국학연구소 (1988), (6) 이동업 「홍암 나철의 생애와 구국운동」, 대중교중광 9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대중사상연구회 1999.3.3, (7) 정영훈, 「홍암 나철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학연구』 제6집, 국학연구소 (2001).

3) 국수보전론의 대표적 논객은 신채호이며 다음과 같은 논설에 개진되어 있다.(1) 「國漢文의 輕重」, 『大韓每日申報』 1908.3.17-19, (개정판) 『단계신채호전집』 별집 77쪽, (2) 「國粹保全說」, 『大韓每日申報』 1908.8.12, 『개전집』 별집 116-118쪽

4) 정영훈, 「한말의 국수보전론적 국학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4집(1993).

의 木도 其根을 絶하면 枯催하나니 況千子萬孫의 人族이 其祖를 忘하고 어찌 繁昌하기를 望하며 安泰하기를 期하리오. ...”<sup>5)</sup>

여기에서 말하는 ‘其祖’는 물론 단군을 가리킨다. 「포명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제국이 ‘대황조’ 단군과 그 ‘교’를 숭봉할 때는 발전했으나 고유종교를 잃고 유교·불교 등 외래종교에 빠지면서 쇠망했다고 지적하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國朝 諸儒가 大皇祖 神聖의 蹟은 說하되 孔孟程朱의 書에 偏滯하여 大皇祖 하신 敎는 研究치 못하였으며 孔孟程朱는 在座後先한 것 같이 想하되 大皇祖 神聖을 洋洋在上하신 줄은 부지하니 自國을 建造하신 聖祖를 不崇하며 自身을 生育하신 聖神을 不敬하며 自家를 修守케하신 聖敎를 不奉하고 他的 祖를 是崇하며 他的 神을 是敬하며 他的 敎를 是奉하니 어찌 如此히 理에 逆하고 常에 乘하는 事가 有하리오”<sup>6)</sup>

말하자면 조선의 현실 또한 공맹정주에 빠진 나머지 ‘忘本背原’하여 고유 종교와 신과 조상을 숭상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 신과 조상을 받드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조선조 유학자들의 사대모화사상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명서」에서는 ‘我 형제자매’는 대황조 단군의 자손이며, 단군교는 사천년 우리나라에 고유한 종교라 강조하고, 이 종교가 흥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凡我同胞兄弟姊妹는 皆我 大皇祖 百世本支의 子孫이요 本敎는 乃四千年 我國 固有한 宗教라 其論은 雖暫息하나 是理는 不泯하고 其行은 雖暫止하나 是道는 自在하여 與天地同其壽하며 與山川同其久하며 與人類同其始終하여 是敎가 興하면 天地가 更新하며 山川이 復煥하며 人類가 蕃昌하고 是敎가 衰하면 卑高가 易位하며 動靜이 失處하며 品物이 不生하나니 是이로 古今의 消長과 歷代의 存廢가 本敎에 關함이 若合符節한지라.”<sup>7)</sup>

5) 「단군교포명서」, 『대종교증광60년사』, 81쪽.

6) 「단군교포명서」, 『대종교증광60년사』, 84쪽.

역사 속에 보이는 흥망성쇠가 고유종교 단군교의 숭봉-변창 여부에 달려있었다고 보는 입장은 당시의 민족적 위기 역시 고유종교 단군교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흥암이 당시의 민족현실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하는 것을 흥암 자신의 글에서 하나 더 인용해보자.

“우리 동포는 누가 우리 천제단군께서 化育하신 것중 靈物이 아니리오 그러나 망본배원하고 사특한 길로 치달려 참함에 아득하고 가달길에 빠져 죄바다로 떨어졌으니, 위태롭기가 불로 뛰어드는 나방이나 우물로 추락하는 어린이가 같다. 하물며 다시 도깨비는 소리하고 괴이한 것들이 날뛰니 천지의 정광이 어두워지면서 배암은 먹고 도야지는 달려간다. 人族의 피와 살이 뚝뚝 떨어지고 산하는 유리쪽으로 부서졌으며, 모래먼지가 비바람에 날린다. 날은 저물고 길은 궁한데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 슬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sup>8)</sup>

여기에서 흥암은 당시의 민족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우물에 떨어지려 하는 어린이와 같이 위태로운 처지라 본다. 동포의 피와 살이 찢겨져 널려 있고 산하는 유리조각처럼 깨어진 상황으로도 묘사하며, 날은 저물고 길은 막혔는데 어쩔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상황으로도 묘사한다. 흥암의 이상과 같은 표현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흥암의 인식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지에 대하여 흥암은 우리 민족 자신의 책임이라는 답을 제시하며 그것도 ‘망본배원’의 문제로부터 기인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국조를 숭봉하고 고유종교를 부흥시켜야만 민족의 부활을 기약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연결된다.<sup>9)</sup> 흥암의

7) 「단군교포명서」, 『대종교중광60년사』, 85쪽.

8) 吾儕同胞 孰非我天神檀帝化育中靈物 然俱以忘本背源 馳逐於邪道 迷真沈妄 淪落於孽海 殆似投燭之殘蛾 墜井之稚子 況復鬼소魅跳 天地之精光晦冥 蛇食而豕突 人族之血肉淋漓 山河破碎於琉璃 塵沙飄蕩於風雨 日暮途窮 人間何處 嗚呼悲哉 是誰之咎 (「恭告教徒文」, 『대종교중광60년사』 212~213쪽)

9) 흥암의 상기한 인용에서는 외견상 일제의 책임은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가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외세의 침략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으며, 앞의 인용에서는 이를 ‘鬼魅’로 묘사하고 있다

단군교-대종교 증광은 이같은 문제의식과 상황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단군교의 증광이 어떻게 국가-민족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또 왜 고유종교의 부활이 긴급하다고 보았는가. 이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홍암이 남긴 글과 대종교 주변의 문헌을 통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개 세 가지 방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의 논리는 민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단군교(대종교)가 핵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대종교는 민족공동의 조상인 단군을 숭앙하는 종교였다. 조상을 잇고 망본배원 하는 자가 자기를 지키고 발전할 수 없다는 「단군교포명서」류의 인식은,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집단적 차원의 공동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집단성원들의 동질적 정체성인식이 중요하고, 그같은 동질성은 공동체의 단일한 뿌리에 대한 각성이 수반될 때 보다 강력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이다. 대종교에서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론-동조동근의식이 민족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들을 극복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그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단군교의 가르침 내용이 시대적으로도 적실성을 갖는다고 본 것 같다. 대종교에서는 국조숭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 윤리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같은 교리내용이 ‘苦暗世界’와 ‘殺伐風塵’을 쓸어내고 ‘一體愛合’하는 ‘도덕세계’를 열어 ‘救人濟世’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홍암은 대종교의 어떤 교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민족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시대의 과제를 위하여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로까지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삼진귀일을 통하여 이상적 인격을 이루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애합종족’과 ‘도덕평화’를 추구하는 교리사상을 실천함으로써 그같은 과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홍암이 단군의 교화를 잇은 것에서 민족적 약화의 원인을 찾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는 대종교를 ‘百教之祖’나 ‘百教之宗’으로 생각하고 대종교를 통하여 종교를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주재자인 천제 단군의 보살핌을 기대하였다. 단군은 천지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자이자 민족적 조상신이요 수호신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절대자에게 보살핌과 원호를 기대한 것은 종교인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천신 한배검에 대한 각종의 제례행사에서는 민족을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것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을 기원하는 원도문들이 바쳐져왔다.

### Ⅲ. 홍암의 대종교 인식

대종교는 홍암에게 있어서는 민족부활을 기약하고 ‘구세제인’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대안이었다. 그러나 대종교는 엄밀히 말하여 홍암이 창립한 것이 아니다. 홍암의 대종교는 다만 단군에 의해 창시된 고유의 천신교를 부활시킨 것이며, 그것도 백두산에서 먼저 단군교를 포명한 백봉으로부터 전교의 사명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sup>10)</sup> 대종교에서도 홍암은 대종교의 교조가 아니라 중홍조라 부르고 있고, 1909년 1월에 대종적 포교를 시작한 것을 개교나 창립이 아닌 ‘重光’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홍암이 대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sup>11)</sup>

홍암에 의하면 대종교는 ‘첫갑자 상달상날’ 상제 한배검이 한밤뫼(백두산) 박달나무 아래 내려와 하늘을 열고 교를 세운 데서 비롯된다.<sup>12)</sup> 단군은 대종교 개교의 교조인 동시에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건국한 국조이고 또 민족의 원시조로도 인식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조화주(환인)-교화주(환웅)-치화주(단군)로의 삼신의 신격을 일체로 통합하여 갖고 있는 삼신일체의 신앙대상(천신)이기도 하다.

홍암은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天民이며, 나반과 아만이라는 이름의 태초의 두 남녀로부터 갈려나갔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10) 나철은 스스로 1904년에 백두산에서 「단군교포명서」를 발표했던 백봉의 단군교의 교인을 자처했으며, 백봉을 제1세 대종사로 상정하고 자신은 백봉의 뒤를 이은 ‘제2세 대종사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대종교에서는 1904년 백두산에서 결성된 백봉의 단군교단이 홍암에게 3차에 걸쳐 전교의 사명을 촉구하였고 그후 홍암 스스로도 1개월간의 주야 원도 끝에 한배검으로부터 大道佈明의 목계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11) 대종교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홍암이 자결 직전에 남겼던 「중광가」와 「단군교포명서」를 참조함.

12) 이 사건을 대종교에서는 ‘개천’이라 부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단군의 건국보다 125년 앞서는 시기의 일로 본다.



민족(배달족)은 천신 단군한배검의 聖血을 직접 계승한 종손민족이라 생각하였다. 또 천하의 萬道 萬教는 백두산에서 단군이 개창한 천신교(倥道)에서 분파되어 나갔고, 따라서 대종교는 百教之祖-百教之宗으로 인식한다.

이 단군이 개창한 천신교는 한민족의 고유종교로서, 최치원이 유·불·도 삼교를 포함하였다 한 현묘지도 풍류도를 비롯하여, 우리 역사 속에 보이는 많은 문화전통들이 이 고유종교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말한다.<sup>13)</sup> 홍암에 의하면 단군에 의한 고유종교는 동방 제국가의 역사 속에서는 대천교(부여), 승천교(신라), 경천교(고구려), 대도진중(발해), 임검교(고려), 주신교(만주)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갈려갔다고 이해한다. 이 고유종교는 홍암에 의하면 한국사 속에 연면히 이어져오다가 유교·불교가 들어오면서 ‘忘本敬他’ 풍조에 밀려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원종때 몽고의 침입으로 교맥이 끊겼고, 조선조 세조·예종때는 금서정책으로 문헌까지 다 소멸되었다고 말한다. 이 고유종교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 백봉의 단군교인데, 홍암은 백봉으로부터 전교를 위임받고 또 스스로 목도를 통하여 계시를 얻어 대종교 중광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홍암이 1909년 1월 처음으로 중광할 때의 교명은 백봉의 단군교포명을 계승하여 단군교로 했었다. 그러나 홍암은 한일합방이 임박한 1910년 8월에 교명을 대종교로 바꾸었다. 大倥이란 ‘한검’의 한자표기로서, 박달임금으로 표기되는 단군 칭호 이전의 순수 삼신일체 한얼님을 뜻하는 칭호라 하며, 대종교는 단군이 창립할 때의 교명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종교로의 개명은 본래의 명칭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얘기인데, 교단에서는 이같은 교명변경은 단군은 일체가 기피하는 명칭이므로 일체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고자 한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단군교라 하면 단군국조를 숭앙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단체로 인정하여 감시와 탄압을 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교단을 지키자는 고려하에 단군 두자를 표면에서 뺀 것이라는 것이다.<sup>14)</sup>

13) 「중광가」 11장-17장까지는 우리 역사 속에 보이는 ‘倥門靈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는 西암后-부루-부소-삼랑-彭元輔 고사 신자 王祖明 배천생 여수가 王受兢 문박씨 신명왕 천왕량 아란불-동명왕-거서간-신라6부시조-김춘추 을지문덕 명립국산 山上玉 김생 발해고왕 고려태조 최치원-이규보-대야말-임아상-이태조 契丹主 女眞帝 仁祖 백봉 등 여러 인물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14) 『대종교중광60년사』, 156 쪽

아무튼 홍암은 한민족이 고유종교 대종교를 저버린 것에서부터 민족의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이 대종교는 그가 당시 시대와 과제에 대하여 제시한 대안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리의 중요부분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대종교의 신앙대상은 삼신일체의 한얼(신:神의古字)-천조신-단군-한배검이다. 환인·환웅·환검은 天祖 단군 一位의 신을 분칭한 것으로, 각기 조화주·교화주·치화주로의 자리에 있다. 이들 3자는 나누면 3이지만 합치면 一神일 뿐이다.

대종교이론에는 삼일철학으로 불리는 특유의 사유체계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완전한 것은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본체는 하나지만 그 작용은 3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 사고방식으로, 가령 一神은 造化·教化·治化의 三神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우주만상의 존재와 인식과 기치의 세 측면에서 性·命·精의 三眞과 心·氣·身의 三妄, 感·息·觸의 三途, 天·地·人의 三才 등의 1과 3으로 분화되어 나뉜다고 보는 것이다.<sup>15)</sup>

종교로의 대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흔히 ‘三眞歸一’로(세 참함으로 하나에 돌아간다) 요약되며, ‘返妄卽眞’·‘性統功完’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永得快樂) 것이라 부연될 수 있을 것 같다.<sup>16)</sup>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止感·調息·禁觸의 3가지 수양법을 지켜야 한다. 이때 지감법은 마음(心) 공부이고 조식법은 기공부이며, 금촉법은 몸(身) 공부에 비유된다. 대종교의 이들 이론은 상당히 어려운 바 있는데, 경전 『회삼경』에서는 “불교의 明心(見性法)은 대종교의 지감법이고, 신선도교의 養氣(煉性法)는 대종교의 조식법이며, 유교의 修身(率性法)은 대종교의 금촉법”이라고 설명한다.<sup>17)</sup>

대종교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실천규범은 홍암이 제시한 (1) 敬奉天神, (2) 誠修靈性, (3) 愛合種族, (4) 靜求利福, (5) 勤務產業의 5대종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18)</sup> 이중 천신을 공경할 것과 靈性を 닦을 것을 요구하는 (1)과 (2)는 순수한 중

15) 이 삼일철학은 말하자면 우주의 생성과 운행원리 및 인간본성의 구조를 ‘一’(본체)과 ‘三’(작용)의 관계속에서 설명하는 사상으로, 이에 대해 살핀 글로는 유병덕 「나철의 삼일철학」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가 참고됨.

16) 『대종교요감』, 대종교총본사(개천4440), 160 쪽에서는 “개인으로는 범인을 바꾸어 철인이 되게 하는 법이요 사회로는 부조리한 사회를 정화하여 천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17) 『회삼경』, 三我-考, 『해석중경사부합편』, 189쪽.

교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3)과 (4)와 (5)항은 사회윤리적이고 현실생활과 관련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중 (3) ‘애합종족은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랑이라는 덕목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4) ‘정구이복은 신비적 기복론이나 공리공론에 빠지지 말고 현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이며, (5) ‘근무산업은 특히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종교는 민족을 (1차적) 구원대상으로 삼는 민족종교로의 측면과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종교로의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민족종교로의 측면에서는 신앙대상을 말할 때 국조-족조-교조로의 단군이 강조된다.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천손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단군은 조상의 의미가 내포된 한배궐(天祖神)으로 불린다. 대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목표를 배달나라 檀國의 회복이라 묘사해왔다.<sup>19)</sup> 홍암은 만주로 총본사를 옮긴 후 역사상의 민족적 위인들을 제사하는 古靈祠를 설치(1913)하였는데, 배사된 주인공은 부루대왕, 부여대왕, 원보평우, 상신고시, 사관신지, 예국군여수기, 남해장 배천생, 해모수대왕, 혁거세대왕, 동명성제, 발해태조고왕, 대금태조황제, 비서압신후, 동신성모 등으로 모두 민족사상의 건국조이거나 위인으로 꼽히는 인물들이었다.<sup>20)</sup> 발해태조와 금태조가 포함된 것은 만주족까지 단군·혈손에 포함시키는 홍암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보편종교로의 대종교는 천신·한얼을 신앙대상으로 하며, 天神主帝 등으로도 지칭된다. 「삼일신고」·「신사기」를 비롯한 대종교의 경전들에서는 단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다만 앞에 말한 보편적 칭호들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경전은 보편적인 창조주-천신과 인간-구원-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의 완성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전 「신

18) 『대종교증광60년사』, 152 쪽

19) 이 단국은 「原本神歌」에서는 ‘배달나라(倍達國)’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단군에 의해 건국된 민족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홍암은 단국의 부활 같은 정치적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단국의 부활은 대종교인들의 궁극적 관심사였다. 일제가 임오교변(1942) 때 대종교를 탄압할 때도 대종교는 반도와 만주를 일본으로부터 탈취하여 배달국(단국)이라는 한민족의 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변혁을 추구하는 단체라 규정되었다.(『임오순교십현실록』, 대종교총본사, 1971, 35-53 쪽 참조)

20) 「祭古靈祠祝文」, 『대종교증광60년사』, 161~162 쪽

사기」에는 천지창조과정과 인류탄생과정이 적혀있는데, 이때 탄생되는 ‘九族은 모든 피부색을 가진 인류 전체이며 나반과 아만이라는 태초의 두 남녀를 시조로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다.<sup>21)</sup>

대종교는 민족종교의 성격과 보편종교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있는데, 홍암의 인식에서도 이 두 가지는 좀 모호하게 섞여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 포고문 같은 데서는 민족적인 단군을 내세우고, 경전과 같은 진리서에서는 우주적 한얼님을 내세워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적절히 알맞게 사용하였다고 하겠다.<sup>22)</sup> 홍암이 교단의 직원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어야만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봉교과규」에서 정한 것은 민족종교로의 성격을 인식한 결과이다.<sup>23)</sup> 그러나 홍암은 대종교를 보편종교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가령 교명을 ‘단군교’로부터 ‘대종교’로 바꾼 것이나, 정교분리를 천명한 것 등은 이 같은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암은 고유종교로의 대종교를 ‘百教之祖’ ‘百教之宗’으로 보는<sup>24)</sup>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온세상의 종교가 대종교에서 갈려나갔고 교리상으로도 모든 종교의 원리를 종합해서 갖고있다고 본다.<sup>25)</sup> 「중광가」에서는 동방역사 속의 대천교(부여), 송천교(신라), 경천교(고구려), 大道眞像, 임검교(고려), 주신교(만주) 등이 단군교에서 갈려간 것이라 말한 후, 유·불·도와 예수교·회교에서 숭배하는 대

21) 「神事記, 造化記, 『解釋宗經四部合編』, 대종교총본사, 79~83 쪽

22) 신철호, 『한국중흥종교교조론』, 76 쪽.

23) 「봉교과규」에서는, 입교한지 15년 미만이면 교리를 선전하거나 교무에 참여하는 권리가 없고 비록 15년 뒤라도 국적을 옮기지않으면 본교 직원의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덧붙여져 있어, 홍암의 대종교가 한민족의 (한민족을 우성 구원대상으로 하는) 민족종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고구려 및 발해의 구강내인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규정도 덧붙여져 있는데, 이는 만주지역을 단군이래의 구강으로 생각하고 만주족을 단군의 자손으로 보는 대단군주의적 인식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봉교과규」에서는 또 비록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라 해도 만약 국적을 바꾼 자는 동포로 대우하지 않되, 만약 사세부득이 하여 타국의 국적에 든 자는 아령·청령·미령의 거주인 같이 마땅히 참작할 것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奉教課規」 『대종교중광60년사』 99~103쪽)

24) 「與日本總理大隈書」, 『대종교중광60년사』 248쪽 ; 「與朝鮮總督寺內書」, 249쪽.

25) 대종교는 특히 자신의 교리가 유불도 삼교의 요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유불도는 대종교로부터 갈려나갔다고 생각한다. 대종교에 의하면 유불도는 대종교의 교리·진리를 각각 부분적으로만 취하여 발전시킨 불완전한 종교사상이라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대종교와 유교」, 『동양철학연구』 29집 동양철학연구회(2002.6) 참조

상들도 모두다 실상은 같은 ‘한배빛’이라 말한다 26)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최치원의 「난랑비서」에도 표명된 바 있다. 곧 나라에 현묘지도가 있는데 유·불·도 삼교의 종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랑비서」에서는 수양과 실천의 측면을 말한 것인데 대하여 홍암은 절대자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홍암은 우주의 주재자는 하나의 한배님(天祖神)인데 각종교에서 서로 달리 부르는 것일 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타종교와 타민족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홍암의 개방적 사유는 이같은 ‘대아적 종교관’과<sup>27)</sup> 연관되어 있다. 대종교가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요청되는 신관-종교관을 타종교보다 앞서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은<sup>28)</sup> 이같은 점들을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암은 이 대종교를 통하여 세계와 종교가 同輝-同化-同歸될 수 있다고 본다. 몇 가지 대목을 인용해보자.

“모질다 歐洲 큰 亂 불쌍타 동포주검/ 피비와 비린 바람 黑暗빛을 다 쏘고  
/ 好生한 天意받아 道德平和 부를 때 / 天神道 明明한 빛 전세계 同輝하되”<sup>29)</sup>  
“記하라 四子言志 奉教者 出班言에 / 幸逢한 문명시대 天神教 중창하여 / 태  
백산 檀木하에 總敎宮 다시 건축 / 世界各教 다 歸一 天下各族 다 同化”<sup>30)</sup>  
“천왕봉 넷 꽃송이 仰天吼 한 횃파람 / 神山靈境 열린 날 동방사람 다 回頭/  
任走하는 迷途人 / 한검 앞에 生活方 / 큰 도덕 生活路에 어서어서 다 同歸”<sup>31)</sup>

물론 이상과 같은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자 포부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종교를 통하여 ‘살리기 좋아하는’ 하늘뜻을 받아서 (好生한 天意받아) ‘道德平和’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대목이다. (「중광가」 42) 자기의 교리와 진리를 포교함에 있어서도 홍암은 그 방법과 과정 역시 호생의 원리와 도덕평화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6) “道淵源 찾아보라 가답가답 한배빛 / 仙家에 天仙宗祖 석가에 帝釋尊崇 / 儒氏의 上帝臨汝 耶蘇의 耶和華와 / 回回의 天主信奉 실상은 한 한배님” (「중광가」 10, 『대종교중광60년사』 223 쪽)

27) 신철호, 『한국중흥종교조론』, 86 쪽.

28)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1992), 142 쪽

29) 「중광가」 42.

30) 「중광가」 43.

31) 「중광가」 44.

#### IV. 애합종족론과 도덕세계론

여기에서는 홍암의 종교민족주의가 갖고있는 사회윤리사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 문제는 대중교의 救人·濟世 사상중 濟世사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와 세상에 대한 홍암의 비전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의식적으로 억제한 듯한데, 이는 뒤에 살필 정교분리론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 직전에 남긴 유서에서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 현실세계에 대한 그의 심회를 짐작하게 한다. 그는 「離世歌」에서 현실세상을 ‘苦暗世界’요 ‘살벌풍진’이라 묘사했으며, ‘무상한 저 세법’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도덕세계’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상사회에 대한 홍암의 표현을 좀더 인용해보자.

“만덕문 들어가서 인간선악 여짜올 때/ 간사코 악독한 자 용서없이 다스리며 / 正眞코 착한 사람 保全하여 다 旺盛케 / 殺伐風塵 쓸어내고 道德世界 새로 열어보세.”<sup>32)</sup>

“상세계 호소하여 天國을 새로 열어 / 한나라 한 神敎로 큰 지구를 통할케 / 大小強弱 너 나를 한집에 一體愛함 / 한 세계 한 道 빛에 天民同樂 만만대”<sup>33)</sup>

여기에서 말한 도덕세계란 힘과 돈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도덕적 원리에 의해 조화되는 세계를 가리킬 것이다. 간사하고 악독한 자가 다스려지고 착한 사람이 보전되며, 침략과 지배욕으로 점철되고있는 살벌한 세대가 사라진 말그대로 도덕에 의해 규제되고 통합되는 세상일 것이다. ‘大小強弱 一體愛함(크고 작고 힘있고 약한 자들이 모두 함께 사랑으로 통합함)이나 ‘天民同樂(하늘이 낸 백성이 모두 함께 즐김) 같은 말은 이 도덕세계론을 보충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도덕세계론은 홍암의 사회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인데, 그러나 그가 이상사회의 모습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이상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神國’‘天國’이라는 말로도 불리며 민족적

32) 「離世歌」 3절, 『대중교중광60년사』 218~220 쪽

33) 「중광가」 54, 『대중교중광60년사』, 245 쪽

색채를 보다 강하게 넣어서 ‘檀國’(배달나라)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종교영역을 고수할 것을 표방한 홍암이 그 구체적 그림을 제시한 적은 없다. 그 실천방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실천윤리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행동 지침으로 제시한 「봉교과규」나 자결시 남긴 유언 등에서 그의 주된 관심방향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sup>34)</sup>

홍암의 사회윤리방면의 사상중 특이하면서 뚜렷한 한가지를 든다면 그의 ‘愛合種族’론이다. 이는 도덕세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 내지 원리에 대한 홍암의 처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교 중광후 발표한 「5대종지」의 3번째 항목이 바로 이 애합종족이다.<sup>35)</sup> 사랑으로 종족을 합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홍암은 결속과 통합의 매개원리를 ‘사랑’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랑해야 할 주체요 대상으로의 ‘종족’은 작게는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겠지만 보다 크게는 민족을 초월하여 인류전체로까지 확대된다. 말하자면 민족일 수도 있고 인류로 읽을 수도 있는데, 물론 홍암의 1차적 관심사는 민족의 통합에 있을 것이다

홍암은 중광후 교인들에게 생활규칙으로 제시한 「봉교과규」와 자결하기 전에 남긴 「밀유」 등의 도처에서 이 ‘애합종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봉교인은 서로 相睦하며 友愛하되 患難相救하고 哀慶相問하여 如同一家之兄弟姊妹하라.”<sup>36)</sup>

“서로 侵奪과 欺瞞과 侮辱과 誣陷과 誹謗치 말라.”<sup>37)</sup>

“항상 지극한 경외로서 천신을 받들고 지극한 인자함(至仁至慈)으로 사람과

34) 홍암이 남긴 「밀유」에서는 “지극한 정성에 이름은 반드시 우리의 八關을 써서 하고, 후덕한 예의를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九誓를 써서 하며, 三法을 힘써 행하여 먼저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뜻을 확고히 세워 스스로 깨닫는 문이 열리게 하라”는 유언이 있는데, 여기서 삼법은 止惑·調息·禁觸의 수양법을 말하며, 구서는 夫餘古俗에 序齒禮때 행했다는 9 가지 맹서인 (1) 黜不孝, (2) 黜不友, (3) 黜不信, (4) 黜不忠, (5) 黜不遜, (6) 勉德業, (7) 規過失, (8) 黜患難, (9) 成禮俗同歸于厚 등을 가리키고, 八關은 八關祭 때 썼다는 8 가지 誓辭 곧 (1) 勿殺生, (2) 勿偷盜, (3) 勿淫泆, (4) 勿忘語, (5) 勿飲酒, (6) 勿座高床, (7) 勿着香華, (8) 勿自樂觀聽 등 8가지 규범을 지칭한다고 한다. 대중교총본사, 『대중교요감』(개천4440), 161~162쪽.

35) 『대중교중광60년사』, 152 쪽

36) 「奉教課規」, 『대중교중광60년사』 99~103 쪽

37) 「奉教課規」, 『대중교중광60년사』 99~103 쪽

세상을 구제하라.”<sup>38)</sup>

“세상의 권세에 아첨하지말고 구차하다고 업신여기지말라.”<sup>39)</sup>

“충효로써 자손을 가르치고 敦睦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라.”<sup>40)</sup>

“안으로 仁智로 닦고 밖으로 信誼로 사귀라”<sup>41)</sup>

“게으르거나 놀기만하지 말고 재물과 淫色을 탐하지 말며, 흠치고 노략질하지말라.”<sup>42)</sup>

“상제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 한나라 한 神敎로 큰 지구를 통할케 / 大小强弱 너나를 한집에 一體愛合 / 한 세계 한 道 빛에 天民同樂 만만세”<sup>43)</sup>

“선심은 활이 되고 악심은 관혁이라 우리 백천만인 활줄같이 바른 선심 끈은 살같이 한마음이라”<sup>44)</sup>

홍암의 도덕세계론과 애합종족론은 단군사회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념을 생각하게 한다. 홍익인간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어의 그대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봉사를 강조하는 관념이다. 흔히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유교의 仁 및 불교의 자비에 비유되며, 평등 및 민주주의와도 통하는 인본주의적 인도주의적 원리이다. 그러나 홍암이 이 홍익인간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홍익인간이념은 조선조와 한말~일제초기까지 크게 주목되지 않다가 1920 년대의 신민족주의자들에게 가서야 재발견되어 좌우합작-통일민족국가의 구성원리로 정립되었는데, 아마도 홍암도 이 홍익인간이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45)</sup>

홍암은 스스로 이 애합종족의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다. 대중교쪽의 문

38) 常克敬克畏 而拜天事神 必至仁至慈 而濟人救世. 「密諭」 『대종교중광60년사』, 210 쪽

39) 「密諭」 『대종교중광60년사』, 210 쪽

40) 「密諭」 『대종교중광60년사』, 210 쪽

41) 「密諭」 『대종교중광60년사』, 210 쪽

42) 「奉敎課規」 『대종교중광60년사』, 99~103 쪽

43) 「重光歌」, 『대종교중광60년사』, 220~245 쪽.

44) 善心大弓成 惡心失的成 我等百百千千人 皆大弓弦同善心 直失一心同. (「원본신가」, 『대종교중광60년사』 96~97쪽)

45)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재발견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정영훈,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



현에서는 그가 행하였던 많은 이적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병자를 치료하고 가뭄을 해갈시키는 등의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以身代命’이라는 문귀를 써붙이고 원도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몸으로써 앓는 이의 목숨을 대신합니다” 또는 “군생들의 죄를 이 몸으로 대신하겠아오니 저를 제물로 받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로 홍암의 삶의 자세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홍암은 이 같은 간절한 원도를 통하여 죽은 이를 살리고 비를 오게하는 등 숭한 이적을 행하였으며,<sup>46)</sup>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병자를 살리고 민중을 살리고자 한 홍암의 자세는 애합종족이라는 자신의 명제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그가 대종교를 포교하기 시작한 불과 8년의 짧은 기간에 30만명의 교인을 자처할 정도로 교세가 팽창했던 것은 홍암의 이같은 포교자세와 관련 있다 할 수 있다.

홍암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건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홍암에게도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은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혁명이나 체제개혁을 촉구하는 대신에 “大小强弱 너·나를 한집에 一體愛함” 하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여 개개인들의 내면을 바꾸는 데 치중하였다. 홍암에게 있어 애합종족론-사랑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라는 교시는 사회를 통합하는 적극적이며 궁극적인 처방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제도보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원리는 당연히 계급을 두고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sup>48)</sup> 동포는 모두 하나의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대종교에서 교인상호간을 형제자매로 상칭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원리를 관철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9)</sup>

46) 홍암이 행한 이적에 대해서는 『대종교중광60년사』, 290-298 쪽; 신철호, 『한국중흥종교 교조론 - 홍암 나철 대중사』, 100-108쪽 참조

47) 홍암이 자결하면서 자신의 장례절차에 대해 남긴 유언 역시 그의 애합종족의 정신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유언에서 자신의 시신은 화장을 하고 아주 검소하게 장례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부담주는 것을 싫어한 홍암의 애합종족사상의 또다른 실천이었다는 생각이다. 『대종교중광60년사』 215-217 쪽

48) 차별을 거부하는 홍암의 생각은 大小强弱 一體愛함 구절에 잘 나타나 있으며, 「중광가」 41절에 나오는 “신지비사 풀어라 秤錘極器 한 天下 / 白牙岡 均等位에 萬邦世世 保太平” 구절 속의 평등관념에도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구절은 사랑과 도덕에 의한 결합과 평등이라는 공동체원리가 홍암의 이상사회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도덕세계와 애합종족에 대한 신념은 타민족과 타종교를 배척하고 침탈하는 편협한 자세를 거부하는 홍암의 포용적 입장과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를 살필 수 있는 대목들을 인용해보자.

“교외지인이나 역외지인을 대할 때도 반드시 온화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화기로운으로 하고, 혹시 경시하여 업신여기거나 편견을 갖고 봄이 있어서는 안됨.”<sup>50)</sup>

“본국 고래의 충신·열사·영웅·호걸의 신명을 모두 숭경할 것이요, 비록 타국의 賢聖이나 敎門이라 해도 불경해서는 안된다.”<sup>51)</sup>

“만일 본교를 篤信하는 사람이 廣見益智를 위하여 타교에 入參하여도 금하지 않을 것이고, 또 타교에 입교한 자라도 본교에 입교를 원하면 곧 허가할 지니, 대개 우리 대황조의 寬弘하신 大度는 본래 이단을 공격하지 않음”<sup>52)</sup>

“敎外人을 편견을 갖고 보지 말고 域外人을 따로 말하지 말라”<sup>53)</sup>

“비록 역외인이라도 본교에 원입하면 또한 허가하여 다 교우로서 同視無間할 것임.”<sup>54)</sup>

“상세계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 한나라 한 神敎로 큰 지구를 통할케 / 大小強弱 너니를 한집에 一體愛合 / 한 세계 한 道 빛에 天民同樂 만만세”<sup>55)</sup>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는 모든 인류를 하느님이 내신 백성(天民)으로 보고 모든 종교를 한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홍암의 입장과 연결이 되어있지만, 아무튼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타민족과 종교에 대하여 편협하고 적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평화론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9) 「入敎儀節」, 『대종교증광60년사』, 98쪽. 이는 “百世親親의 義와 謙恭友篤의 愛를 포함”이라 설명된다.

50) 「奉敎課規」, 『대종교증광60년사』, 99~103쪽.

51) 「奉敎課規」, 『대종교증광60년사』, 99~103쪽.

52) 「奉敎課規」, 『대종교증광60년사』, 99~103쪽.

53) 「密諭」, 『대종교증광60년사』, 210쪽.

54) 「奉敎課規」, 『대종교증광60년사』, 99~103쪽.

55) 「重光歌」 54, 『대종교증광60년사』, 220~245쪽.

## V. 정교분리론

홍암의 종교민족주의와 관련하여 하나 더 살필 것은 홍암이 자주 발언했던 정교분리론에 대한 문제이다. 홍암은 창립직후부터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자주 교시했었다. 중광과 동시에 발표한 「奉教課規」에서부터 “만드시 본분을 지키고, 관청의 賦稅와 徭役을 공경하여 좇으며, 각자 맡은 일에 진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奉教課規」) 조선의 국운이 어두워지면서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교시가 잦아지는데, 홍암은 중광한 해 말에 발표한 「歲暮所感」에서는 “금년 초봄부터 정치사상이나 관리와의 교섭을 사절하고 사회의 일에 간여하지 않고 폐문수도할 것”이라 선언하면서, 대종교가 우리 역사속에서 전폐되었던 이유는 정치에 관여했었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政敎가 엄정분리된 뒤에야 종교의 진리가 著發하고 사람의 眞誠이 심화된다고 설파하였다.<sup>56)</sup> 정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언명은 한 일합방조약 체결이 임박한 시기에 교인들에게 교시한 「四愼」에서 좀더 구체화하였고, 이같은 원칙은 자결시 남긴 유언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sup>57)</sup>

홍암의 이같은 정교분리론은 일단 일제의 권력을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강한 대종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모처럼 일으켜 세운 고유종교와 대종교단을 정치적 풍파로부터 보호하려는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우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종교는 본래 단군을 조화·교화·치화의 기능을 수행했던 존재로 상정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구원이나 완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데로까지 관심이 미치고 있다.<sup>58)</sup> 홍암을 비롯한 대종교 중광

56) 『대종교중광60년사』, 154 쪽

57) “敎는 시국에 무관하니 安身立命함”(「四愼1」); “新法에 주의하여 犯科가 없게함”(「四愼2」); “마음대로 행동하여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분별없이 행동하여 법률을 범하지말라”(「密諭」) 홍암은 대종교가 종교 본령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 문제제 선불리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는데, 「密諭」에서 말한 “교문을 빙자하여 일을 저지르지 말고, 교중을 앞세우고 세상일을 다투지말라” 한 교시같은 것이 그것이다

58) 또 대종교인들의 단군에 대한 회고에는 단군이 제시하고 실천한 것으로 얘기돼온 ‘착한 道와 어진 政事’에 대한 흥미가 뒤따랐으며(「단군가」 4절), 이는 당연히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에 참여한 이들의 성향 또한 민족운동에 전념하던 애국지사들로서 개인적 구원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그런 점에서 대종교는 어느 종교보다 정치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대종교인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배달민족의 이상적 자주독립국가인 ‘단국’을 현실적으로 재건하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종교는 고유종교-대종교의 성쇠를 민족국가의 흥망과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단군교포명서」의 기본논리가 그러하였거니와, 대종교인들에게 대종교의 존립이유의 제 조는 민족발전-자주독립이라는 과제와 연관되어 설정되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본질적 속성은 민족을 말살하고 식민지로 영유하려는 일제와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와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않아도 단군의 가지는 민족적 의의와 흥암과 지도자들이 갖고있던 반일사상이 노출되어 있는 터에 교단이 민족독립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서는 일제의 탄압 앞에 교단의 존립과 포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실천적 관심은 숨기고 은폐해둘 필요가 있었다. 흥암에게 있어 교단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민족의 소멸과 같은 의미가 있는 중대사였다. 그리하여 흥암으로서는 식민당국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그의 초기 언행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근중히 산업과 利福에나 몰두하며, 관헌의 징세·부역 요구에 협조하라는 식의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같은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할 수 있다.

교명을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꾼 데에도 이같은 고려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sup>59)</sup> 흥암은 이같은 공적 천명들을 앞세워서 대종교는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종교라는 논리로 일제를 상대로 하여 합법적인 포교권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1915년 일제가 종교통제안을 공포하고 모든 종교는 설립연원에 따라 포교허가를 받을 것을 강요하였을 때도 흥암은 “예측했던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至誠解決함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일제가 제시한 「신교포교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흥암과 대종교의 포교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른 군소 신앙단체는 모두 서류를 접수하면서도 대종교에 대해서만은 神敎가 아니라는 이유

59) 교단측에서는 교명을 바꾸고 정교분리를 천명한 것은 모두 일제의 경계심을 풀고자하는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한다.

로 신청서류를 각하하고 교내외활동을 금지시켰던 것이다.<sup>60)</sup> 홍암으로서는 타협적 현실노선이었겠지만 일제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암 이후에도 대종교 지도층은 한편으로는 정교분리론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신신앙으로의 순수종교라는 설명을 앞세워서 만주의 군벌과 중국정부 및 일제와 만주국 당국을 상대로 하여 합법적 포교권을 얻으려 하였지만 대종교의 그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sup>61)</sup>

정교분리론은 일제식민통치하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모든 종교가 견지하던 원칙이기도 하였다. 일제도 통감부 설치 이래 정교분리를 강조하였고 일제하의 대부분 종교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sup>62)</sup> 일제의 정교분리론은 종교가 항일세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제하의 종교들이 일제의 종교정책을 수용한 것은 식민 통치를 방관-묵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 종교들의 정교분리론은 무단적 식민통치하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측면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종교쪽에서는 식민당국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는 의미도 가지며, 일제와 맞서 싸우기보다 일보 후퇴해서 자주독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우회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종교와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특히 그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sup>63)</sup>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일제치하에서의 교단생존과 포교를 염두에둔 전략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영역과 구분되는 종교적 영역의 독자성에 대한 나름대

60) 『대종교중광60년사』, 185~186 쪽

61) 홍암의 정교분리론이 대종교의 사상적 풍성화와 사회활동의 폭을 제약한 것도 사실인데, 대종교인들중에는 정교분리라는 교단의 공식적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도 있었다. 가령 신백우 같은 이는 사회적 내지 실천적 현실과 괴리된 윤리적·종교적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전제하에 政教相助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신백우는 대종교인이면서도 조선공산당에도 참여했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민족운동가였다. 경부 신백우선생기념사업회 편, 『耕夫申伯雨』(1972), 186쪽 참조.

62) 강돈구,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114쪽.

63) 한용운의 불교유신론에도 정교분리주장이 보이는데 이는 일제가 조선불교를 관제어용화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어논리라는 성격이 짙다. 그런데 홍암의 정교분리론에도 이같이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당시 일제와 친일파는 단군과 천조대신을 묶어서 함께 숭앙함으로써 ‘내선일체’의 식민지배논리를 보강하려 하고 있었는데 홍암의 정교분리론은 그같은 공작을 애초부터 거부하는 의미가 있었다.

로의 인식이 깊어진 것과는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홍암의 정교분리론을, 민족적 저항적 성격을 숨기고 대중교가 갖고있는 보편적 성격을 내세워서 합법적인 포교공간을 확보하고자하였던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중교의 종교적 보편적 측면에 대한 각성이 제고되면서 그 방면에서 활로를 찾고 발전해갈 생각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대중교인들에게 있어 궁극의 관심이 민족의 자주독립, 곧 단국의 부활에 있었지만, 홍암은 적어도 공식적 문건에서는 자주독립이나 민족부활을 위하여 꺾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하여 종교의 본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결 전에 교인들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참 믿음에 큰 공 세워 神國에서 다시 만날 것과 ‘한 마음에 性通하여’ 天宮에서 함께 즐길 것을 권고하였다.<sup>64)</sup> 홍암이 제세구인·천민동락·도덕세계와 같은 종교보편의 용어를 자주 사용한 것도 이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종교의 보편적 본령에 대한 자각은 교명을 단군교로부터 대중교로 바꾸는 과정에도 일정하게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홍암의 정교분리론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중교는 운명적으로 민족적일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 명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국조를 교조로 상정하는 고유종교를 표방하는 데다,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식을 교리 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인들의 정서 또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에 가까웠으며, 강한 민족의식에 토대하여 민족부활에 대한 신념을 갖고있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영유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자긍심이나 소속의식이 소멸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일제 식민당국이 그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 일제가 대중교의 포교를 불허하고 탄압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식민치하에서 대중교가 보편종교로 발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홍암의 정교분리론을 말함에 있어서는 두 세가지 문제가 더 고찰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홍암이나 대중교인의 궁극적 관심이 정치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할 때 홍암과 대중교가 생각한 이상국가 내지 이상적 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이다. 이는 앞장에서 말한 도덕세계론이나 애합종족론 같은

64) 「離世歌」, 『대중교증광60년사』, 219~220쪽.

홍암의 사회이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또 대중교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檀國’(배달나라)이라 불렀거니와 이 단국에 대한 대중교인들의 생각도 좀더 구체적으로 사례조사와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일제하 대중교인들에게 ‘一民’論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었고,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보이는 均權·均富·均智론이 삼일철학의 연장선 위에서 역시 공유되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해두고자 한다.<sup>65)</sup>

근대 한국민족주의를 평가하는 두 척도도 흔히 지적되는 것이 반제-민족보전과 반봉건-근대화라는 지표인데 이 두가지 척도를 가지고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를 평가해보는 문제도 이 장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 두 척도중 반제 민족보전이라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말의 사상적 흐름 가운데 홍암의 사상과 대중교의 노선은 가장 민족주의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암의 사상은 중세기이래의 소중화적 정체성으로부터 명백히 이탈해 있었으며, 이점은 위정척사파나 동학계, 그리고 동도서기류의 개화파들이 아직 소중화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암에게 있어 지키고 보전해야 할 대상과 투쟁해야 할 주체는 명백히 조선민족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반봉건-근대화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홍암과 대중교는 같은 편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암과 대중교는 출발시기부터 군주와 국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는 근대적 인식에 토대하고 있었다. 대중교의 국가관은 명백히 민족의 국가라는 근대적 국민국가사상에 토대하고 있었으며, 성원들간의 평등성-동질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앞서있었다. 단군의 같은 자손이라는 동포의식은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고, 실제로 홍암은 교인들을 서로

65) 필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그리고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대중교적 정치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성격을 갖고있다고 본다. 이들 세 이론은 모두 민족고유의 정치이론을 구체화시키고 계승한 것을 자처하고 있다. 또 정치·경제·교육의 3 방면에서 균등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 보고 이같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통일국가의 주된 기능으로 본 점에서도 같은데, 이 균권-균자-균부론은 대중교 삼일철학의 조화-교화-치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안재홍과 안호상은 대중교인이었고 조소앙 역시 대중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받았던 철저한 단군민족주의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참조

형제자매로 부를 것을 교시하였다. 단군이래의 반만년 민족사의 견지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민족주의사관은 왕토포관념과 충군의리-존왕사상으로 무장해있던 보수세력 및 정권-왕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지향은 성격상 국민주의혁명의 논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홍암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sup>66)</sup>

홍암사상의 근대지향적 성격과 관련하여 하나 더 언급할 것은 그가 「5대종지」에서 강조한 ‘근무산업’ ‘정구이복’과 같은 교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이다. 홍암은 전통지식인이 갖고있던 탈실리 명분주의나 농업중시사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근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 식산홍업론 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대목은 홍암 사상의 근대적 지향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점들은 홍암의 종교민족주의사상이 반봉건 근대화 민주화라는 과제와도 호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sup>67)</sup>

## VI. 맺음말

이 논문은 홍암 나철의 대중교운동을 종교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 
- 66) 이 점과 관련하여, 대중교의 사상이 반제적 성격은 강했지만 구질서 개혁과 반봉건의 측면은 취약했던 것처럼 평가했던 종래의 일부 견해는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140쪽 ;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중교」, 『한국사연구』 114 호, 한국사연구회 2001, 247 쪽)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중교는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은 전략적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었지만 그 교리가 지향하는 바는 앞시대의 질서를 뒤집는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대중교가 반봉건의 정치사회적 구호를 전면에 내놓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점이 균형있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제에 망하기까지 국내에는 구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혁명론을 제창한 세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말의 단군운동이 국민주의적 지향과 결합되었다는 것은 정영훈의 「근대 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2001) 을 참고할 것
- 67) 한영우교수는 대중교가 신민회(1907)계통의 새로운 역사인식을 종교의 차원으로 극단화시킨 것이 바로 대중교라 규정할 바 있는데, (한영우, 「한말에 있어서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단체 신채호선생 탄신100주년 기념논총』 165 쪽) 주지하다시피 신민회는 한국사상 공화주의를 지향한 최초의 비밀결사로 지목된다.



다. 홍암의 대종교는 비록 인류의 구원을 추구하는 보편종교로의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민족의 고유종교로 자처하면서 이 고유종교의 부활을 통한 민족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말-일제하의 종교민족주의 중에서도 전형적이며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대종교는 한민족이 공동조상으로 상정하는 단군을 교조이자 신앙대상으로 삼고있으며, 국조숭봉과 고유종교의 추이가 역대 국가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는 관점에서 고유종교가 존립-발전해야만 민족의 부활이 도모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홍암의 대종교가 민족주의적 성격을 짙게 띠고있지만 그러나 홍암은 다른 종교와 민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거부하고 상호존중과 공존·포용의 자세를 촉구한다. 그리고 약육강식하는 살벌한 세상을 사랑으로 모두를 통합하는 도덕세계로 바꿀 것을 염원하였다. 그의 애합종족론은 단군의 자손으로의 한민족을 우선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를 하늘이 낸 천민으로 보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인류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홍암의 이같은 사회사상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았다. 홍암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교단을 지키기 위한 고려하에 자신과 대종교의 강한 실천적 성격을 숨기고 정교분리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홍암은 정교분리를 천명하고 교명을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꿈으로써 일제의 감시를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홍암과 대종교는 끝까지 일제로부터 합법적인 포교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근대한국민족주의가 추구한 두가지 지표를 흔히 반제-자주독립과 반봉건-근대화로 설명하거니와,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이같은 두가지 지표로의 역사진전에 동참하였다 할 수 있다. 우선 홍암과 대종교는 소중화적 자기의식을 거부하고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의식을 분명히 갖고있으면서 민족적 자주독립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반제-자주독립의 지표에 충실하였다 할 수 있다. 홍암과 대종교의 민족의식은 당시 어느 민족운동 흐름보다 분명하였으며, 실제로 대종교는 한국사 속에서 근대적 민족의식을 보급한 주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홍암의 사상과 대종교는 또한 반봉건-근대화 민주화 방향으로의 지향도 가지고 있었다.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의식은 성원간의 평등한 동질성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반만년 민족사인식은 존왕양이론이나 충군애국론 류의 전근대적 사상을 넘어서서 민족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라는 관념을 보급하였다. 정교분리를 공

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정속에서 그같은 정치사회적 지향이 구체적 주장이나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명백히 국민주의 공화주의적 지향과 결합해 있었다 할 수 있다.

홍암의 대중교는 인류 모두를 포교·구원대상으로 하는 보편종교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주요경전들이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니와, 비록 한민족의 공동시조로 이해되어온 단군을 창교주이자 신앙대상으로 상징하면서 또 한국사 속의 고유적 문화전통들을 대중교의 문화적 원류로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같은 측면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종교로서의 보편적 메시지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암의 대중교는 민족적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다. 대중교의 교당아래 모인 교인들이 모두 치열한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홍암 스스로도 민족부활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단군교·대중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대중교가 한민족의 민족적 각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를 알고 있었기에 홍암과 대중교단이 정교분리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의 포교를 허용하지 않았다. 홍암과 대중교는 민족적 과제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려 하였던 종교민족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민족지도자들을 포용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임오교변으로 일제의 철저한 박해를 받은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홍암의 대중교는 ‘단군민족주의’라 불리고있는 일련의 사상·의식 흐름과 관련하여 그 형성·전개·역할 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단군민족주의란 단군을 민족의 공동시조로 간주하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동질성 인식에 토대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통일과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사상·의식 또는 정치적·문화적 운동을 가리킨다.<sup>68)</sup> 이 단군민족주의는 우리 정신사 속에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단군건국 기사를 전해준 「고기」나 「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있으며, 특히 한말에 들어와서 대중화하여 한민족의 민족운동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여하게 된다. 한말에 확산되는 단군의 자손의식이나, 단기년호, 그리고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사학을 비롯한 국학, 그리

68) 단군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집(1995) ;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집2호(1995) 등을 참조할 것.

고 이 논문에서 다른 대중교의 중광 등은 대표적인 단군민족주의적 문화현상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이다. 삼일운동도 단군민족주의의 영향하에 발발하였으며, 3.1운동후의 좌우합작-통일전선운동에서도 단군민족주의가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단군민족주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국가적 통합기제의 한 축으로 제도속에 편입되는데, 개천절 국경일이나 홍익인간 교육이념, 단기년호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 단군민족주의의 진원지요 주역이 바로 대중교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중교를 한말에 중광하여 조직해낸 사람과 사상이 바로 홍암 나철과 그의 종교민족주의이론이었다. 물론 홍암의 종교민족주의는 「고기」나 「본기」 이래 우리 정신사 속에 존재해오던 단군민족주의적 민족의식 및 종교의식의 연장선위에서, 그리고 근대기의 단군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유래와 의의가 규명돼야 할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른 자리로 미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한계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 논문은 홍암 나철의 대중교운동을 특히 민족주의운동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으로 홍암의 사상 및 대중교가 가지는 종교 본래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서도 대중교의 경전들은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거니와, 어찌보면 「단군교포명서」 류의 문제의식이 대중교가 보편종교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은 측면도 있다고 본다. 대중교가 종교본래의 질문들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하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자 한다.

69) 일인 학자들 중에는 한말의 단군민족주의나 대중교의 형성배경과 관련하여 일본 국수주의 신도사상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도 있지만 (佐佐充昭, 「檀君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 『朝鮮學報』 174집, 2001) 이같은 입장에는 일정한 편견이나 무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일본사상사에서 고신도-천황제 국학 국수주의로 이어져온 일련의 고유적 흐름에 비교할 수 있는 흐름이 한국사 속에서도 존재했었다고 보는데, 고신도-선가 단군민족주의 대중교 한말국학으로 이어져오는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서의 이 흐름은 일본과 달리 대륙의 강대세력의 침략과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환경조건 때문에 공개적인 계승그룹을 형성하지 못하고 산간에 숨어서 전승되어온 관계로 한국사상사 속에서 그 존재가 잘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 속에는 유불 등 외래문화유입 이전의 고유의 문화와 에토스에 집착해온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한말의 대중교나 단군민족주의현상은 이같은 흐름이 부활-대중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일본쪽의 자극이 큰 것도 사실이나 그것의 영향하에 급조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편견이나 무지의 산물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속의 선가에 대해서는 정영훈, 「규원사화에 나타난 민족의식」, 『정신문화연구』 39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참조

## 참고문헌

-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1992.
- 경부 신백우선생기념사업회 편, 『耕夫申伯雨』, 1972
- 김동환, 「기유중광의 민족사적 의의」, 『국학연구』 제 6집 국학연구소, 1988.
-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중광60년사』, 1968.
- 대종교총본사, 『해석종경4부합편』
- 대종교총본사, 『임오십현순교실록』, 1971.
-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요감』, 1983.
-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4,
- 박 환, 『나철·김교현·윤세복』, 동아일보사, 1992.
- 박 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종교」, 『한국사연구』 114호, 한국사연구회 2001, 247쪽
- 신철호, 『한국 신흥종교 교조론 ; 홍암 나철대중사』, 한국새종교연구원 1979.
- 신채호, 「國漢文의 輕重」, 『大韓毎日申報』 1908.3.17-19 ; (개정판) 『단체신채호전집』 별집
- 신채호, 「國粹保全說」, 『大韓毎日申報』 1908.8.12 ; (개정판) 『단체신채호전집』 별집
- 유병덕, 「나철의 삼일철학」,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시인사 1985.
- 이동연, 「홍암 나철의 생애와 구국운동」, 대종교중광 9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대종사상 연구회, 1999.3.3.
-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집, 1995.
- 정영훈 외, 『홍익인간기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정영훈, 「홍암 나철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학연구』 제 6집 국학연구소, 2001.
- 정영훈, 「근대 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1.
- 정영훈, 「대종교와 유교」, 『동양철학연구』 2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2.
- 한영우, 「한말에 있어서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단체신채호선생 탄신100주년 기념논총』
-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 佐佐充昭, 「檀君ナショナリズムの 形成」, 『朝鮮學報』 174집 2001.

## 주요어

나철, 대종교, 종교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 한국근대종교, 단군민족주의